

직원직무교육을 다녀와서...



지난 2월 충북 오송에 소재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9~11일, 14~16일, 16~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한결핵협회 직원 직무교육이 있었다. 그동안 격년에 한 번 정도로 이루어지던 교육 연수가 직원 화합에 목적이 있었다면 이번 교육은 철저하게 실무와 실무에 필요한 스킬, 리더십 등의 교육 과정으로 스케줄이 짜여진, 그야말로 타이트한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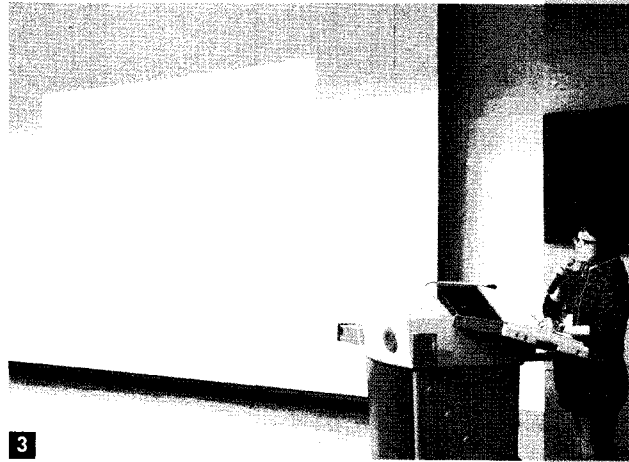
기자는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던 첫 번째 교육과정에 참가하며, 아주 오랜만에 학창시절의 열정을 느낄수 있었는데 이는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공통된 심정이 아니었을까 한다.

일정은 아침 조식 후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강의와 석식 이후 이루어지는 조별 분임토의. 그리고 무엇보다 참가 직원들을 압박해온 테스트 시간.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업무경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기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의문도 들었지만, 대한결핵협회 직원으로서 갖는 공통분모가 있어서인지 공감하며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저녁식사 후 이틀간을 꼬박 매달렸던 분임토의였다. 기자가 참석했던 토의 주제는 “조직간 커뮤니케이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었는데, 최근 협회가 안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을 하나씩은 전부 짚어보았다고 생각된다.

직책의 높고 낮음, 직종의 다름에 관계없이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이었다. 처음 토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진지한 토론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할 이야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란 생각마저 들었다.

개인별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압박 속에서도



3

1 실무자교육 1기의 단체사진 2 금새라도 뿔어져나올 듯한 열기 가득한 강의 현장 3 “협회 홍보사업 문제점과 홍보강화 방안”을 발표해 분임토의 1위를 차지한 중앙지회 좌미라 직원.

함께 공동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새벽녘까지 의견을 조율하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낸, 그야말로 뿌듯한 시간이 바로 분임토의의 시간이었다.

같은 시간 교육에 참가한 조에게는 회원관리라든지, 크리스마스 씰, 결핵퇴치 홍보 등 협회 현안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분임토의의 주제로 주어졌는데, 열린 토론 분위기는 어느 한 조만의 사정은 아니었다. 이런 부분이 경쟁심을 자극했고, 토의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것이다.

11일 모든 교육 일정이 끝나고 테스트의 시간. 생각보다 어려웠던 문제들에 희비가 엇갈렸지만, 이번 교육이 변화없던 일상에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시험이 끝나고 돌아오는 해방감. 앞으로 속속 체력단련과 테스트, 또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순간 만큼은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에서 헤어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다. †